

논문투고일 : 2011.09.06

심사완료일 : 2011.11.07

게재확정일 : 2011.11.24

# 제주도 무구(巫具) '삼멩두'를 통해 본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

전주희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Jeon, Ju-hee | The doctor's course of Sogang University

1. 머리말
2. <초공본풀이> 신화의 메타포로서의 도상, '삼멩두'
3. 제주도굿에서의 도상·지표·상징 기호로서의 '삼멩두'
4. 신화, 무구, 제의의 세미오시스 : 제주도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
5. 삼멩두의 상징성과 종교적 맥락에 따른 신성성
6. 맺음말

КСІ

# 제주도 무구(巫具) ‘삼멩두’를 통해 본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

전 주 희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1. 머리말

‘삼멩두’는 제주도 무속신화 <초공본풀이>에 나오는 ‘갯부기 삼형제’를 가리키는 말이자 제주도 심방에게 있어 중요한 무구(巫具)이다. 갯부기 삼형제는 저승 삼시왕으로 좌정하여 무조신(巫祖神)이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 무속에서 삼멩두는 무조신을 상징하는 무구로 인식된다. 삼멩두는 신칼·요령·산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화에서는 각각 갯부기 삼형제의 아명(兒名)인 ‘본멩두’, ‘신멩두’, ‘살이살축 삼멩두’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무조신은 말 그대로 무당의 조상을 가리키는데, 제주도 무속에서는 무당의 조상을 삼멩두로 여기고 있으므로 삼멩두라는 무구는 이 지역에서 가리키는 무조신과 그 후손이 되는 심방(神房)의 성격 및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호가 된다. 이때 <초공본풀이><sup>1)</sup>와 ‘삼멩두’는 굿이라는 제의적 맥락 안에서 더욱 긴밀하게 연결된다. “의례 속에서는 언어·행위·물질, 이 삼자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고리를 지니면서 의례의 상징성을 표출해 주는 대상”<sup>2)</sup>이 되며, “물질에 해당되는 무구는 추상적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출해 주는 수단으로서, 무구를 중심으로 의례 속에서 언어·행위가 지니는 상징적인 요소를 함께 분석해내는 방법”<sup>3)</sup>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언어 전승물인 신화 <초공본풀이>와 물질 전승물인 삼멩두, 그리고 행위 전승물인 제주도굿의 상호 관계를 통해 이들이 형성해내는 제주도의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의미들이 부여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이 되는 제주 무속의 종교적 맥락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세계의 모든 것을 기호로 파악하는 퍼스(C. S. Pierce)의 기호 개념<sup>4)</sup>을

1) 삼멩두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이것의 신화적 전거로 <초공본풀이>를 항상 참조해 온 것은 사실이다.

2) 최진아, 2005, 『무구(巫具)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무속학』 제10집, 한국무속학회, 314쪽.

3) 최진아, 위의 글, 314쪽.

토대로, 〈초공본풀이〉·삼멩두·굿을 모두 하나의 기호로 상정하고, 이들의 기호작용(semiosis)에서 나타나는 관념, 즉 '해석소'(Interpretant)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퍼스가 대상(object)을 중심으로 분류했던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 기호의 기능이 실제 굿의 삼멩두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기호 기능들은 제주도 무속의 종교문화적 맥락에서 가능한 것임을 밝힐 것이다.

퍼스의 기호학에서 '해석소'는 어떤 '대상'(object)을 대신하는 '기호'(sign)에 대한 해석자의 관념임과 동시에 그것 자체가 다시 또 하나의 '기호'가 된다는 점에서, 정체되고 고정된 개념이 아닌 지속적이고 무한한 운동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해석소를 '무엇이다'라고 확실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본고에서는 〈초공본풀이〉, 삼멩두, 굿의 상호 기호작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관념으로 무조신과 심방에 대한 관념을 상정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초공본풀이〉와 삼멩두는 모두 '무조신'이라는 대상을 상징하는 기호이며, 굿은 무조신이 속해 있는 맥락, 즉 무속 신앙을 나타내는 한 기호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조신은 심방의 조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들 기호는 '심방'과도 떨어져 생각될 수 없다. 따라서 기호-대상의 관계에서 떠오르는 해석소는 대상인 무조신 및 심방과 동떨어져 관념될 수 없으며, 이들 기호작용에서 적절한 연관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해석소로써 무조신과 심방에 대한 관념 및 그 의미를 따져보는 것은 타당하다.

해석소를 통한 해석은, 그라운드(Ground)가 즉각적 대상(Immediate)<sup>5)</sup>으로서 의미로 표명되는 방식이다.<sup>6)</sup> 그라운드는 대상의 속성이자, 대상의 가능한 술어들 중의 하나(난로는 뜨겁다, 크다, 더럽다, 또는 다른 방식으로 묘사될 수도 있다)<sup>7)</sup>인데, 기호는 이러한 그라운드를 통해 즉각적 대상을 교육한다<sup>8)</sup> (institute). 다시 말해, 실제 연행되는 제주도굿에서 구송되고 사용되는 〈초공본풀이〉와 삼멩두를 한 기호로 본다면, 이들은 무조신과 심방에 대한 가능한 술어인 '그라운드'를 나타내는 '즉각적 대상'이 된다.<sup>9)</sup> 이러한 즉각적 대상으로 형성되는 관념이 의미이며, 그 관념은 무조신과 심방에 관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조신 및 심방은 다시 다양한 기호를 생산할 수 있는 역동적 대상이 됨과 동시에, 이들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기호인 굿 안에서의 〈초공본풀이〉와 삼멩두는 즉각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퍼스의 기호학에서 대상은 실제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지시물로서의 대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내용이며 의미를 지닌 문화적 단위다. 이것은 어떤 '대상'을 대신하는 '기호'가 다시 하나의 대상이 되거나, 또 다른 것을 대신하는 기호가 되기도 하는 기호작용 자체의 순환성에 기인한

4) 퍼스의 기호학에서 기호작용, 즉 세미오시스는 기호(sign), 대상(object), 해석소(interpretant)의 세 가지 개념에서 출발한다. 무엇(대상)을 대신하는 기호가 해석자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관념(해석소)은 다시 하나의 기호가 되며, 이러한 세미오시스는 무한하다고 보는 것이 퍼스 기호학의 기본 입장이다.

5) "즉각적 대상은 기호 자체가 재현하는 대로의 대상이며, 그것의 존재는 기호 속에 들어갈 정도로 재현에 의존적이다. 즉각적 대상은 〈내부〉이며, 하나의 관념이며, 〈정신적 재현〉이다." 움베르토 에코 저, 김운찬 역, 2009, 『이야기 속의 독자』, 열린책들, 50쪽.

6) 움베르토 에코, 앞의 책, 51쪽.

7) "또한 그라운드는 두 해석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관계 동안에 하나의 관념이 포착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관념이다." 움베르토 에코, 앞의 책, 48-49쪽.

8) 움베르토 에코, 앞의 책, 50쪽.

9) 물론 굿의 맥락을 떠나 존재하는 대상인 〈초공본풀이〉, 삼멩두, 제주도굿은 '역동적 대상'(Dynamic Object)이라 할 수 있다. "역동적 대상은 자신의 재현에서 기호가 결정되도록 강요하는 대상 '자체'이며, 즉각적 대상은 역동적 대상이 초점화된 방식이다. 움베르토 에코, 앞의 책, 50쪽.

것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초공본풀이〉와 삼맹두, 굿을 각각 기호로 봄과 동시에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다양한 기호들과 그러한 기호 작용 속에서 대상이나 기호가 지닐 수 있는 내포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한편, 제주도 무구에 대한 선행 연구<sup>10)</sup>는 많지 않다. 게다가 삼맹두를 독립적인 대상으로 한 논문은 김현선의 연구<sup>11)</sup>가 유일하다. 그러나 육지와 제주도의 무속제의에서 쓰이는 무구에 대한 실측 조사, 제작 과정, 제의에서의 쓰임 및 의미 등을 조사한 연구<sup>12)</sup>는 상대적으로 축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삼맹두에 대한 독립적인 논문은 부족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 삼맹두는 상대적으로 특징적인 무구로 여겨져, 그것의 제의에서의 기능과 의미는 별도로 언급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삼맹두에 내포된 제주도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를 밝히는 데 일조하고자 마련되었다. 본문의 1장에서는 먼저 삼맹두의 신화적 전거인 〈초공본풀이〉와의 비교를 통해 삼맹두의 도상이 서사의 이미지와 유사성을 형성하며, 그 도상은 신화의 서사에 대한 하나의 메타포로 나타남을 밝힐 것이다. 물론 본 논문에서 〈초공본풀이〉는 삼맹두의 내력과 그 의미를 추론하기 위한 전거적 텍스트로 참고될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는 삼맹두가 굿에서 지니는 기호적 의미가 도상·지표를 포함한 상징의 기호 기능을 보임을 밝히고, 그것의 의미를 〈초공본풀이〉와의 관계 속에서 따져볼 것이다. 또한 3장에서는 이들 기호들이 형성해내는 해석소로서의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 및 정체성을 구체화시키고 2장에서 밝혀진 삼맹두의 기호 기능의 한 기반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제주 무속의 종교적 맥락과 그 안에서 삼맹두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밝힐 것이다.

## 2. 〈초공본풀이〉 신화의 메타포로서의 도상, ‘삼맹두’

삼맹두의 신화적 전거인 〈초공본풀이〉<sup>13)</sup>를 참조해 보면 신갈, 요령, 산판의 형상 또는 굿에서의 쓰임

10) 권태호, 2002, 『제주도 무악기 ‘연물’의 전승적 연구 - 물질, 구비, 행위전승의 측면에서』, 『생활문화연구』 제5호, 국립민속박물관; 김현선, 2003, 『제주도 무구 ‘울쇠’의 성격과 의의 - ‘울쇠’의 각편, 내력, 비교 등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제12호, 국립민속박물관; \_\_\_\_\_, 2009, 〈삼맹두〉,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편,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편, 2008,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巫具(전라도 제주도편)』, 민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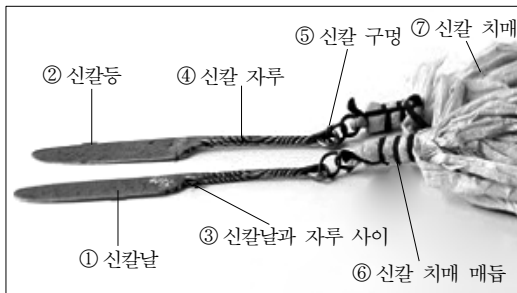
11) 김현선, 2002, 『제주도 무구 ‘삼맹두’와 ‘울쇠’의 전승적 연구』, 『생활문화연구』 제6호, 국립민속박물관.

12) 국립문화재연구소편, 2008,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巫具(전라도 제주도편)』, 민속원; 김태근, 1983, 『韓國巫俗研究』, 集文堂; 문무병, 2003, 『8. 제주도굿』, 『한국의 굿』(하호길 외), 민속원; 송기태, 2007, 『씻김굿 무구(巫具)의 기능과 극적 의례성』, 『한국무속학』 제15집, 한국무속학회; 이명숙, 2004, 『서울지역 무구의 신화·의례적 기능』, 『한국무속학』 제8집; 진성기, 2002, 『제주도무구본풀이사건』, 민속원; 황루시, 1998, 『IV. 무구의 상상체계 - 무구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회, 『기층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상체계(中) - 시간민속·물질문화』(최인학 외), 민속원; 최진아, 2005, 『무구(巫具)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무속학』 제10집, 한국무속학회; 최진아, 2006, 『서울굿의 무구 연구』, 『한국무속학』 제12집, 한국무속학회; 현용준, 2007, 『제주도무속지료사전』, 각; 현용준, 1969, 『濟州島巫覡의 職能者로서의 性格』,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乙酉文化社; 현용준, 1986, 『濟州島 巫俗 研究』, 集文堂; 아카바 다카시·아카미쓰 지조 공편, 심우성 역, 1991, 『조선무속의 연구』 下, 동문선.

13)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님의 장기간 외출 때문에 부모님에 의해 작은 공에 갇힌 주지행왕아기씨는 그녀의 미모를 전해 듣고 온 황금산 도단양 주지 선생의 권제삼문으로 인해 처녀의 몸으로 세쌍둥이를 잉태하게 된다. 이를 알게 된 부모는 그녀를 내쫓고, 아이의 아버지를 찾던 아기씨는 그로부터 불도 땅에 들어가 아이를 낳고 살리는 말을 듣는다. 거기서 태어난 셋부기 삼형제는 아버지가 중이라는 것과 가난한 형편 때문에 사람들로 부터 무시를 당하지만, 결국 과거에 급제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투기한 삼천선비가 그들의 어머니를 물명지 전대로 줄라 깊은 공에 가두게 되고, 셋부기 삼형제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과거급제에 반납하고 아버지를 찾아가고, 아버지는 그들에게 팔자를 그려서 심방이 되고, 무구를 제작하여 올려야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고 하고, 그들은 너시너너도령과 함께 무구를 제작하여 어머니를 살리고 저승 삼시왕이 되어 올라간다. 이후 유정승따님아기라는 인물이 업전을 주운 뒤로 안질에 걸려 고생하다 결국 77세에 팔자를 그려서 심방이 되는데, 저부장자녀 딸이 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굿을 하여 살리고자 한다. 그러나 무구가 없어 굿을 못하게 되자, 유정승따님아기는

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그중에 신칼은 신화의 서사가 형성해내는 이미지들이 가장 많이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곧 서사의 이미지와 신칼의 도상이 '유사성'을 바탕으로 '은유적 관계'를 지닌 것을 알 수 있는데, 퍼스는 그러한 유사성에 기초한 기호를 '도상'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도상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조형적 이미지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 외에 추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에도 일반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간의 도덕성의 경우,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갖는 도덕성의 공통분모를 두고 '저것이 바로 도덕성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일반화할 수 있는 도덕성의 유사점이 있다. 퍼스의 유사성 또는 닮음의 이론에서 도상의 질적 특성을 얘기할 때 그 도상은 이러한 내재적이고 추상적인 것까지도 포함된다."<sup>14)</sup> 따라서 본장에서는 <초공본풀이> 서사의 이미지와 삼멩두 도상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이들이 서로 은유(metaphor)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가. 신칼과 <초공본풀이>



<사진 1> 신칼의 각 부위와 명칭

신칼의 신화적 명칭은 '시왕대번지'이다. 신화에서는 어머니를 삼천천제석궁에 가두었던 삼천선비를 징치하기 위해 깃부기 삼형제가 사용했던 칼로 기술되고 있다. 신칼은 낫쇠로 만들어져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며, 길이 25cm 내외, 날의 길이가 13cm 내외, 자루의 길이 12cm 내외의 것으로 칼자루에는 창오지를 길게 꿰어 묶어 맨 끈이 달려있으며<sup>15)</sup> 이를 '신칼치매'라고 한다. <사진 1><sup>16)</sup>에서 볼 수 있

듯이 신칼은 각 부위를 일컫는 명칭이 있으며, 그 부위의 형상은 신화 속의 특정 내용을 추상적으로 형상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각각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다.<sup>17)</sup>

- ① 신칼날 : 깃부기 삼형제를 포태한 죽지맹왕아기씨의 배.
- ② 신칼등 : 깃부기 삼형제를 포태한 죽지맹왕아기씨의 등.
- ③ 신칼날과 자루 사이 : '조심드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죽지맹왕아기씨가 집에서 쫓겨나 주점선생을 만나러

저승삼시왕에게 청하여 무구를 받고 곳을 올려 자부장자네 딸을 살린다.

14) 박연규, 2004, 『퍼스기호학에 있어 도상기호(icon)의 재현성』, 『기호학연구』 제16집, 한국기호학회, 221-222쪽.

15) 현용준, 1986, 『濟州島 巫俗 研究』, 集文堂, 14쪽.

16)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공.

17) 신칼의 각 부위가 상징하는 것이 심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김현선, 2002, 『제주도 무구 '삼멩두'와 '울쇠'의 전승적 연구』, 『생활문화연구』 제6호, 국립민속박물관, 116-117쪽과 국립문화재연구소편, 2008,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巫具(전라도 제주도편)』, 민속원의 조사 자료를 참조하였음.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연구』, 진성기의 『제주도무기본풀이사전』의 자료와 함께 김만보 심방, 강치옥 심방의 무구를 직접 조사한 김현선의 자료 상계 논문이 모두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주로 김현선의 논문을 참조함.

가는 험난한 길을 조심스럽게 지나간 것을 형상화.

- ④ 신칼 자루 : 죽지맹왕아기씨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것을 알게 되자, 당황하여 자신의 손목을 틀어쥐어서 생긴 자국. 또는 죽지맹왕아기씨가 궁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하게 되지 손목만 비비 꼬며 울었던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하기도 함.
- ⑤ 신칼 구멍 : 죽지맹왕아기씨에게 밥, 옷 등을 넣기 위해 있었던 궁의 구멍.
- ⑥ 신칼 치매 매듭 : 매듭이 세 개인데, 곧 잿부기 삼형제를 나타냄.
- ⑦ 신칼 치매 : 죽지맹왕아기씨의 치마.

\* 신칼 무늬 : 신칼에 따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음. 신칼등의 표면에 있는 곡선 무늬로 잿부기 삼형제가 서당에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에 갑자기 나온 뱀을 상징한 것이라 하기도 하며, 과거에 급제한 잿부기 삼형제가 내려오다가 지나가던 ‘만주에미’를 죽인 것을 뜻하기도 함. 또는 잿부기 삼형제가 과거보러 갈 때에 배좌수 집을 나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삼도전거리에서 청룡·황룡이 길을 가로 질렀던 일을 상징한다고도 함.

이처럼 신화의 서사가 형성하는 이미지가 A라면 신칼의 각 부위는 B로 비유할 수 있는, 곧 ‘A는 B다’의 은유가 성립된다. 특히 신칼의 도상은 신화 속 죽지맹왕아기씨의 몸을 형상화한 부분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대부분의 신칼의 각 부위는 그녀의 삶에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건들을 추상적·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치 무조신의 어머니인 죽지맹왕아기씨의 신체(神體)로 여겨질 정도이다.<sup>18)</sup> 그리고 다른 삼행두 무구인 요령, 산판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인 신화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신칼은 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곳에서도 그 쓰임이 아주 요긴하다.

### 나. 요령과 <초공본풀이>

요령의 신화적 명칭은 ‘천안낙화금정옥술발’이다. 늦쇠로 만들어진 요령은 <사진 2><sup>19)</sup>에서 볼 수 있듯이 손으로 잡고 흔들면 맑은 소리가 나며, 직경 7cm 내외의 크기이다. 요령의 끝에는 삼색물색을 달아서 그것을 잡아 흔들어 소리를 낸다.<sup>20)</sup> 신화의 전반부에 요령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주점선생이 죽지맹왕아기씨에게 권제삼문을 받으려고 아기씨



<사진 2> 요령

18) 삼행두가 저승삼시왕이 되는 잿부기 삼형제를 상징하면서도 그 내력과 도상적 의미는 그들의 어머니인 죽지맹왕아기씨의 삶이나 신체와 더 가깝게 연결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의문점이 될 수 있다. 아마도 무조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존재가 삼행두 도상에 형상화됨으로써 삼행두와 무조신이 지니는 원초적, 시원(始原)적 의미를 부각시켜주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19)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공.

20) 김한선, 앞의 글, 120쪽.

의 집에 왔다가 느진덕정하님으로부터 아기씨가 '일흔여덟 비계살장 마흔여덟 고무살장 안에 마흔여덟 거심통쇄(자물쇠와 자물쇠청)'로 잠가 둔 방에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주점선생이 그 방을 열어주면 직접 나와서 권제삼문을 줄 수 있겠느냐고 하자 아기씨가 허락하게 된다. 그리고 주점선생이 가지고 있던 요령을 세 번 흔들자 굳게 잠겨있던 문이 열리게 되어 아기씨가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처럼 신화에서 마치 요령처럼 나타나는 '천안낙화금정옥술발'은 요령과 비슷한 기능, 즉 '흔들어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천안낙화금정옥술발'은 삼멩두의 요령과 비슷한 도상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령이 실제 제주도 곳에서 신을 청하거나, 신이 나오는 군문을 열 때 흔들어 사용한다는 점(B)에서 신화 속 상황의 이미지(A)와 유사한 기능을 나타낸다. 따라서 신화 속 요령과 삼멩두의 요령은 'A는 B다'의 은유적 관계로 성립된다.

#### 다. 산판과 〈초공본풀이〉



(사진 3) 산판(천문, 상잔)

산판은 상잔, 천문, 산때(잔대)로 구성된다. 〈사진 3〉<sup>21)</sup>에서 보듯이, 직경 5cm 내외의 엽전 모양으로 '천지문'이나 '천지일월' 등의 한자가 새겨진 것이 '천문'이며, 직경 4cm 내외의 술잔처럼 움푹 파인 원형의 것이 '상잔', 그리고 직경 13cm 내외로, 천문과 상잔을 담고 있는 주발 같은 것이 '산때'이다.<sup>22)</sup> 산때를 제외한 상잔과 천문은 모두 두 개씩 한 벌을 이룬다. 〈초공본풀이〉에 나타나는 산판의 신화적 명칭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산판에 새겨진 문자 '천지문'(天地門)에 대한 설명은 나온다. 바로 잿부기 삼형제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가 그 방법을 묻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설운 아기덜 체암의 날 찾아올 때 질 먼저 무슨걸 보았느냐?”

“하늘을 보고 왔수다.” 하늘천제(天字) 마련 하고,

“두번쨌 무슨걸 보았느냐?”

“땅을 보고 왔수다.” 따깃제(地字) 마련 하고,

“식찰번엿 무슨걸 보았느냐?”

“올레문(門)을 보고 왔수다.” 올레문 제(門字) 마련하여 천지문(天地門) 아방 주던 게천문(開天門)을 마련 하고<sup>23)</sup>

21) 국립문화재연구소편, 앞의 책, 400쪽의 김윤수 심방의 산판 사진을 게재함.

22) 진성기, 1991, 『제주도무기본풀이사전』, 민속원, 751쪽.

23) 현용준, 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146~147쪽.



한편, ‘상잔’은 신화에서 죽지메왕아기씨가 젓부기 삼형제를 낳고 아이들을 목욕시킬 때 썼던 그릇으로 나타난다.<sup>24)</sup> 삼멩두가 신화 〈초공본풀이〉를 전거로 하여 제작이 되었는지, 아니면 삼멩두를 전거로 하여 〈초공본풀이〉가 지어졌는지 그 선후관계는 알 수 없으며,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신화 속 특정 사건들과 삼멩두의 도상이 어떤 상상력을 바탕으로 유사성을 지니면서 관련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삼멩두의 도상은 지속적으로 복제되고 있다. 제주도 심방들은 삼멩두를 선생 심방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기도 하지만, 삼멩두가 훼손되었거나 새로이 만들어 사용해야 할 경우, 기존의 삼멩두를 ‘본매’로 하여 그것과 같은 모양의 삼멩두를 전문가에게 제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이처럼 〈초공본풀이〉 서사가 형성하는 이미지와 삼멩두의 도상이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결되면서 그 도상은 신화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물질과 언어로 함께 전승되면서 삼멩두의 기원과 정체성은 더욱 구체화되고, 신성성을 더욱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 3. 제주도곳에서의 도상·지표·상징 기호로서의 ‘삼멩두’

그러나 도상은 항상 상징과 함께 나타나야 기호로 기능할 수 있으며, 도상 자체가 기호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은 도상이 지닌 일차성(Firstness)<sup>25)</sup>에 기인한 것으로, 도상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하나의 가능성이며, 대상과의 관계에 바탕을 둔 이차성의 지표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독립적인 기호 기능을 할 수 없다. 삼멩두인 신칼, 산판, 요령도 그것이 제주도 무속에서 신화를 근거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며, 곳의 맥락에서 규약적 행위를 유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호가 되는 것이지, 삼멩두 도상 자체는 아무런 기호 기능이 없다. 결국 삼멩두라는 상징 기호는 그것을 퇴행적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의 지표성과 도상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즉, “모든 기호는 현실적으로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징은 반드시 구체적인 시공간을 담보하는 지표를 갖고 있어야”<sup>26)</sup> 하며, 따라서 “도상기호는 이러한 지표와 상징이 동반된 속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며 도상기호 자체로만 존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도상기호는 상징을 지표로, 지표는 도상으로 퇴행하면서 ‘드러나는’ 것이다.”<sup>27)</sup>

본장에서는 삼멩두의 이러한 도상·지표·상징 기호의 면모가 제의의 맥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24) “...초사를 당하니 모욕상잔(沐浴床戢) 내려놓고 몸 모욕을 시키니 어머니가 내려준 상잔이 꿰웁네다.”

현용준, 앞의 책, 141쪽.

25) “일차성, 이차성, 삼차성은 퍼스 기호학의 개념 용어로, 일차성(firstness)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의 존재 방식이며, 그것이 무엇이건 다른 어떤 것을 참조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질 그 자체의 범주이다. 이차성(secondness)은 두 번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대로의 존재하는 것의 존재 방식이며 세 번째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원적 관계들의 범주가 바로 그것이다. 이차성의 범주는 ‘여기’, 그리고 ‘지금’의 범주이며 대상과 인과적인 관계를 맺는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연결하는 매개물로서의 삼차성(thirdness)은 일반성의 범주이다. 표상·연속성·진화·사고·지성·법칙·시간·기호의 범주들이 이에 속하며 상징이 그러하다.”

Charles Sanders Peirce 저, 김성도 역, 2006, 『퍼스의 기호사상』, 민음사, 15쪽 참고.

26) 박연규, 앞의 글, 230쪽.

27) 박연규, 앞의 글, 230쪽.

살피고자 한다. 삼멩두는 심방의 집에 따로 안치되는 공간이 있을 정도로 심방에게는 중요한 무구이며, 어떤 곳을 하게 되든 심방이 항상 소지하여 다니는 무구이다. 그리고 실제 곳에서 심방은 이들 무구를 적절한 상황에 번갈아 사용하며 백분 활용한다.

## 가. 신칼

신칼은 심방이 곳을 할 때 양손에 쥐고 춤을 출 때도 사용되고, 신이 내릴 공간에 사기(邪氣)를 쫓는 벽사(辟邪)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신의(神意)를 알고자 할 때 양칼을 수시로 던져 그 모양으로 신의를 해석하는 점구(占具)이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 던져진 칼의 모양과 해석이 〈초공본풀이〉의 내용과 일정부분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신칼의 도상성에 대한 것은 이미 앞장에서 〈초공본풀이〉에 근거하여 살펴보았지만, 실제 곳에서도 던져진 신칼의 도상은 해석 행위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된다. 다음은 신칼이 떨어진 방향과 그에 대한 해석을 정리한 것이다.<sup>28)</sup>

- ① 좌우교병(좌도뚜리 또는 ㄱ세뚜리) : 두 칼날이 모두 위로 향하면서 교차된 것. 아기씨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것을 알고 부모가 작두를 걸어 그녀를 죽이려고 한 것을 상징함과 동시에 곳을 의뢰한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패.
- ② 상향병행(칼싼다리) : 두 칼날이 모두 위로 나란히 향한 것. 아기씨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부모가 그녀를 칼로 죽이려고 했다는 데서 유래하기도 하며, 맨발로 칼날 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저승 차사가 잡으러 오는 것과는 같은 점괘. 심방은 새로운 점괘가 나도록 신에게 빌고 다시 점을 치게 됨.
- ③ 좌우내향(애순다리) : 칼날이 서로 마주 본 것. 〈초공본풀이〉에서 아기씨가 부모와 헤어지면서 갖는 마음에서 비롯됨. 인간사에서 이별의 슬픔을 상징하나, 송신(送神) 때에는 바람직한 패상으로 해석.
- ④ 좌우상반(등진뚜리) : 칼날이 서로 등져 보임. 아기씨가 부모와 헤어지면서 등을 지게 된 것에서 유래. 역시 불길한 상이지만, 송신 때에는 바람직한 패상.
- ⑤ 좌외우내(왼주부뚜리) : 칼날이 모두 왼쪽으로 향한 것. 'ㄷ보인패'라고 해서 낫을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여기는 패. 〈초공본풀이〉에서는 아기씨의 어머니인 김진국부인이 집에서 쫓겨나는 딸에게 부채를 준 것에서 유래하는데, 신화에서 '올은뚜리'로 표현되기도 함. 이때 심방은 다시 점괘를 놓으며 기꺼운 응락의 표시를 빌게 됨.
- ⑥ 좌내우외(나단주부뚜리) : 두 칼날이 모두 오른쪽으로 향해 누운 것. 최고의 길조로 해석함.

28) 김현선, 2002, 『제주도 무구 '삼멩두'와 '울쇠'의 전승적 연구』, 『생활문화연구』 제6호, 국립민속박물관, 118쪽; 진성기, 앞의 책, 775-776쪽 참조.

던져진 신칼의 형상은 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시 신에게 청을 드려야 하는 궤이다. 특징적인 것은 나머지 ①~⑤의 칼날 형상이 신화 속 죽지맹왕아기씨의 비극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아기씨가 처녀의 몸으로 갓부기 삼형제를 잉태하게 된 상황에서부터 연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초공본풀이〉에는 아기씨가 집에서 쫓겨나와 길을 걷다 만나게 되는 칼쓴다리, 애스다리, 등진다리, 올은다리를 건너면서 이들 명칭의 의미를 하녀 느진덕정하님에게 묻고 답변을 듣는 장면이 나온다.<sup>29)</sup>

던져진 신칼의 형상은 신화적 전거에 의해,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도상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신칼은 굿을 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지표 기능을 지닌다. 곧 심방과 굿을 의뢰한 본주의 입장에서는 신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신칼의 방향이 그러한 형상으로 던져진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sup>30)</sup> 따라서 신의 마음과 신칼의 방향은 인과관계를 맺게 되므로 그 상황에서 신칼은 ‘지표적 기호’가 된다. 더불어 그러한 신칼 점괘에 따라 심방이 다시 신에게 청하거나,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호에 의한 판단으로 일정한 후속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신칼은 ‘상징 기호’가 된다.

## 나. 요령

요령은 실제 굿에서는 점구로 기능하지 않는다. 주로 청신(請神)을 하거나 군문을 열 때에 쓴다. 요령의 신화적 전거는 앞장에서도 말했듯이, 주점선생이 죽지맹왕아기씨에게 권제삼문을 받기 위해서 그녀의 잠긴 방문을 열 때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실제 굿에서 심방이 〈초공본풀이〉에서 위의 장면을 구송할 때에는 심방도 요령을 흔든다. 신화와 유사한 도상을 획득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요령이 아무 때나 사용되지 않고,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된다는 점도 ‘지표 기호’의 기능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요령은 주로 군문을 열 때와 청신할 때 심방이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데, 이것은 무언가 초월적인 신력(神力)이 필요하거나 신의 하강을 유도할 때 사용됨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요령을 흔들으로써 군문열기와 청신 제차를 지시함과 동시에 그 소리가 자체가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거나 신성계로의 이입 또는 신과의 만남을 가져오기 때문에 요령의 소리와 신성과의 접촉은 지시 및 인과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지표’와 ‘상징’의 기호 기능을 모두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29) 현용준, 앞의 책, 138-139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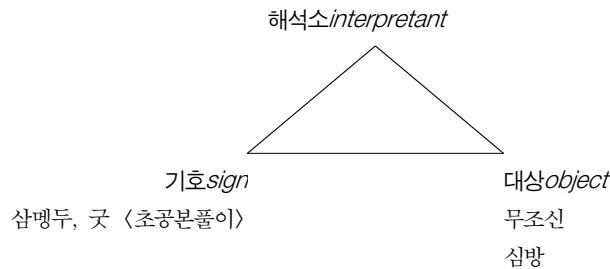
30) 혹자는 심방이 신칼을 그 방향으로 나오도록 던졌기 때문에 그러한 형상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심방은 그 점괘를 보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것뿐이요, …(중략)… 다시 말하면, 신의 탐지 능력은 무점구(巫占具) 그것에 내재해 있고, 심방은 어디까지나 무점구를 중간에 세워 간접적으로 신령과의 관계를 맺는 자”(현용준, 1969, 『濟州島巫覡의 職能者로서의 性格』,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乙酉文化社, 529-530쪽)라는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방두는 신성이 내재된 무구로 보기 때문에 신의 현존 내지 신의 뜻을 알리는 지표 기호로 해석될 수 있다.

## 다. 산판

산판은 신갈과 마찬가지로 곳에서 점구로 쓰인다. 즉 심방이 상잔과 천문을 던져 그 엮어지거나 자빠진 형상을 보고 신의를 가늠하는 것이다.<sup>31)</sup> 산판은 신화적 전거에 의해 '천지문'과 '목욕상잔'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도상성을 획득하지만, 신갈과 달리 실제 곳에서 그것이 던져진 모양, 예를 들면 '상천사반(지싱군문)', '상천사정(감은공수)', '일정삼반(삼시군문)', '이정이반(진나련패)', '삼정일반(일상)', '이정이반(양두막음)', '일정삼반', '삼정일반(외군문)', '이정이반(병문)' 등<sup>32)</sup>은 신화에서 전거를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신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천문과 상잔의 형상이 그렇게 나오고, 또 그것이 곳을 주재하는 심방에게 일정한 해석과 후속 행위를 유발하게 되므로, 천문과 상잔은 곳에서 점구로 쓰일 경우 '지표'와 '상징' 기호로 기능한다.

## 4. 신화, 무구, 제의의 세미오시스 : 제주도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

본장에서 논의할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는 실제 제주도곳에서의 삼멩두와 <초공본풀이>의 기능을 토대로 살핀 것이다. 무구와 신화 그리고 제의는 무조신과 심방을 어떤 측면에서 재현하는 즉각적 대상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가리키는 각각 하나의 기호이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제주도 무속이라는 장(場) 안에 있는 무조신과 심방에 대한 관념, 곧 해석소를 창출하게 된다.



<그림 1> '삼멩두, <초공본풀이>, 곳'의 기호 작용

31) 천문과 상잔의 엮어지거나 자빠진 형상에 따른 신의 해석은 김현선, 앞의 글, 122-124쪽과 진성기, 앞의 책, 752-753쪽 참조. 본고에서 도상과 관련하여 천문과 상잔의 형상에 대한 제시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함.

32) 여기서 숫자를 나타내는 일(-), 이(二), 삼(三), 사(四)는 천문과 상잔의 개수를 말하며, 정(正)과 반(反)은 천문과 상잔이 바로 선 것과 엮어진 것을 각각 뜻한다.

앞서 살폈던 삼맹두 중 ‘신칼’은 신화와의 관계에서만 살펴보면 잿부기 삼형제보다 그들의 어머니인 즈지맹왕아기씨에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신칼의 각 부위는 그녀의 신체와 그녀와 관련된 어떤 사건 및 상황들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곳에서 점구로 쓰일 때조차 그 칼의 방향과 해석은 아기씨가 느낀덕정하님과 함께 건넜던 ‘드리’들에 기인해 있기 때문이다. 즉 ‘신칼’은 마치 즈지맹왕아기씨가 겪었던 고난과 아픔을 형상화한 것으로 생각된다(이와 함께 각주 18 참조). 그러나 신화의 말미에 잿부기 삼형제가 즈지맹왕아기씨를 삼천천제석궁에 가두었던 삼천선비를 ‘시왕대번지’로 징치하면서 그것은 악인들에 대한 보복, 징치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초공본풀이>에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일월이 희롱하는 시왕대번지를 마련하면 양반의 원수(怨讐) 가프젠 삼시왕(三十王)으로 올라간다. 양반(兩班) 잡단 칼은 이른 닷단 칼(七十五尺)이고, 중인(中人) 잡단 칼은 서른 닷단 칼이고, 하인(下人) 잡단 칼은 홑단단(單五尺) 칼을 마련하면, 이른닷단 칼로 시왕대번지를 무어 삼천선비 양반의 원수를 가꿨다.<sup>33)</sup>

이 칼은 한 번 번쩍 들기만 하면 양반의 모가지가 일천 개씩 떨어지는 신도(神刀)라 한다.<sup>34)</sup> 또한 신칼은 점구 기능 외에 잡귀를 쫓는 기능이 있어 심방은 이 칼로써 축귀를 한다.<sup>35)</sup> 물론 육지 지역의 곳에서도 대신칼, 신장칼 등이 있으며 무속에서 이러한 칼은 공통적으로 축귀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신칼은 잡귀의 범접을 금하고 쫓는, ‘신령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며, ‘사기(邪氣)로부터 사람들을 수호’하는 제주도 심방의 역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요령은 신화적 전거와 실제 곳에서의 기능을 따져보았을 때 그 ‘신령함’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요령은 신화 속의 ‘천양낙화금정옥술발’을 참고했을 때, 그 시각적 이미지(image)보다는 청각적인 소리에 유사성을 둔 도상 기호이다. 그러므로 군문을 열어 청신을 할 때 흔드는 요령의 맑은 소리는 ‘인간계와 신성계를 연결해주는 영매’로서의 심방의 역할을 나타낸다. 무(巫)라는 한자를 하늘과 땅을 잇고(工), 그 사이에서 춤추는 무당의(人) 소매를 본뜬 상형 문자라고 해석하듯이, 제주도의 심방이든 육지의 무당이든 사실 모든 무력은 신령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고, 매개해주는 사제자의 역할을 한다. 더불어 각 지역마다 곳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무구들이 그것의 형태와 크기, 기능면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큰 범주에서는 일치하며, 그 예로 어느 지역이나 신을 청할 때에는 쇠울림이나 쇠소리를 내서 청한다<sup>36)</sup>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육지의 무구인 방울이 곳에서 제주도의 요령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밝힌 제주도의 신칼의 기능은 육지 지역 무구인 대신칼, 신장칼 등의 기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33) 현용준, 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진』, 각, 148쪽.

34) 현용준, 1969, 『濟州道巫覡의 職能者로서의 性格』,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乙酉文化社, 534쪽.

35) 현용준, 위의 글, 534쪽.

36) 이명숙, 2004, 『서울지역 무구의 신화·의례적 기능』, 『한국무속학』 제8집, 한국무속학회, 89-112쪽.

반면 삼맹두의 산관은 다른 지역 무구와 비슷한 형태를 지닌 것을 찾기 어렵다. 굳이 근접한 무구를 들자면 산관의 '천문'과 도상이 비슷한 '엽전'이 있는데, 엽전도 육지 지역 곳에서는 점구로 기능한다. 또한 <초공본풀이> 말미에 유정승 따님아기가 엽전을 주운 이후로 안질(眼疾)이 생겨 결국 77세에 팔자를 그려쳐 심방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엽전은 심방이 될 운명을 지닌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증표가 된다. 이와 함께 <초공본풀이>에서 셋부기 삼형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아 마련한 '天地門'이 삼맹두 중 산관에 새겨져 있다는 것<sup>37)</sup>은 주목할 부분이다. 유정승따님아기의 엽전이 그녀가 심방이 될 운명을 상징했던 것처럼, '天地門은 셋부기 삼형제에게 팔자를 그려쳐 심방이 되어야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며 아버지가 그들에게 내려준 징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확장해서 의미를 유추해 본다면, 심방은 하늘(天), 땅(地) 혹은 해(日)와 달(月)의 질서·기운·이치를 알고, 집집마다(門)의 사정에 도움이 되도록 알려주는 사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산관은 천지의 이치를 바탕으로, 산관이 던져진 형상을 보고 신의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지(智)의 능력'을 갖춘 심방을 상징하며, 곧 '예언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인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심방이 곳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번쩍하는 그 뭐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방이라야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중략)... 그에 대한 판단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심방이 잘 한다 못 한다 수덕(修德)이 있다 없다가 정해진다.... (중략)... 심방이 수덕이 있다 하는 것은 명두로써 점을 칠 때, 모시고 다니는 명두 조상이라는 신이 바르게 판단해 주기 때문에, 길을 바르게 잡아 주면 아픈 사람 병도 고치고, 수덕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게 된다.... (중략)... 그것을 잘 해득 못해 가지고 본주에게 전갈을 잘 못해버리게 되면 잘못되는 것이다.<sup>38)</sup>

“심방질 하려면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곳할 집에 와서 한번 척 둘러보고는 이내 그 집안의 살림 형편이나 괴로워 하는 것이나 기원하는 바를 알아 낼 수 있어야 합니다.”<sup>39)</sup>

산관과 심방의 밀접한 관련을 드러내주는 다른 증거가 있어 또한 흥미롭다. 일찍이 김헌선은 <초공본풀이>의 한 대목과 산관의 관련성을 지적하였는데, “에인타인(御印打印) 수레 감봉 막음을 주어두고”<sup>40)</sup> 라는 대목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유정승 따님아기가 죽어가는 자부장자 집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곳을 하려는데, 무구가 없어서 너사무너도령에게 사정을 말하자, 이를 저승 삼시왕(셋부기 삼형제)이 듣고, 그녀를 물명주 전대로 걸려 올려 약밥약술을 먹인 후에 곳에 필요한 삼천기덕(三千旗德) 일만제기(一萬祭器) 궁전궁낙(宮中宮樂)을 주면서 곳을 하라고 내보내는 부분이다. 여기서 ‘어인’은 천문 하나를 뜻하고,

37) 물론 天地門외에도 ‘天地日月’, ‘天門日月’ 등의 한자가 새겨진 경우도 있다.

38) 문무병, 2003, 『8, 제주도굿』, 『한국의 굿』(하호길 외), 민속원, 340쪽.

39) 현웅준, 1969, 『濟州島巫覡의 職能者로서의 性格』,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乙酉文化社, 533쪽.

40) 제주도청 외, 2001, 『초공본풀이』, 『제주도큰굿자료』, 제주도전통문화연구소, 236쪽(김헌선, 2002, 『제주도 무구 '삼맹두'와 '울쇠'의 전승적 연구』, 『생활문화연구』 제6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재인용).

‘타인’은 나머지 천문, ‘감봉’은 상잔 하나, ‘막음(수레)’은 나머지 상잔을 각각 뜻한다. 그리고 산대는 ‘거짓말 아니쿠다’를 뜻하는데<sup>41)</sup>, 이것은 심방이 되기 위한 제주도의 신곳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 곧 약밥약술을 받고 어인타인 도장을 받고, ‘곱은맹두’를 찾아가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어인타인과 수레 감봉 막음을 하는 것이 곧 천문, 상잔, 산때이며 그것이 산판으로 귀결되고<sup>42)</sup>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산판(천문, 상잔, 산때)은 제주도 심방의 근본을 나타내면서도 심방이 되기 위한 자격을 나타내며, 특히 예언자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삼맹두는 곧 제주도 심방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 및 그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칼은 사기(邪氣)또는 잡귀로부터 인간을 ‘수호’해야 하는 심방의 위엄을 상징하며, 요령은 신령과 인간을 이어주고 만나게 해주는 ‘매개자’인 심방의 사제 역할을 상징하며, 산판은 하늘과 땅의 천문이치를 알고 각 가정의 사정을 알아 예언하거나 해결해주는 지혜를 가진 ‘예언자’를 상징한다. 일찍이 현용준은 무격을 ‘사제(司祭)’, ‘주의(呪醫)’, ‘점자(占者)’를 주로 하는 전문적 직능자<sup>43)</sup>로 정의하였는데, 사제(司祭)는 곧 요령으로(신과 인간의 매개자), 주의(呪醫)는 곧 신칼로(잡귀를 물리치는 수호자), 그리고 점자(占者)는 곧 산판(예언자)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물론 육지의 무격도 이와 같은 직능이 있음은 동일하나, ‘어떤’ 무구를 통해 그러한 보편적 직능이 형상화되느냐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육지에서 중요한 무구로 간주되는 ‘부채’는 제주도 무구에서는 삼맹두만큼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지역마다 어떤 무구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또 어떤 곳에서 특히 중요하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른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한편, 무조신의 의미를 마저 살필 필요가 있다. 일단 삼맹두인 신칼, 요령, 산판이 제주도 무속에서 중요한 무구로 모셔지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무조신의 내력을 푼 <초공본풀이>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무조신과 무구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늠하게 한다. 사실 <초공본풀이> 신화에서 이들 삼맹두가 잿부기 삼형제를 각각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은 없다. 제주도 심방들이 그들의 조상으로서 삼맹두를 마치 무조신의 신체로 섬기는 풍속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맹두와 무조신화의 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초공본풀이>에는 삼맹두 외에 곳에 필요한 무악기의 기원도 나타나는데, 무악기는 의 형제를 맺은 너사무너도령과 함께 만든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잿부기 삼형제, 즉 무조신의 내력은 굿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무구의 내력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무구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삼천천제석궁을 울려 어머니를 살려 저승 삼시왕으로 좌정한 무조신과 그들이 만든 무구를 가지고 처음으로 굿을 하여 병든 사람을 살린 유정승 따님아기는 모두 곳에 필요한 ‘무구를 다루는 능력’과 ‘굿을 할 줄 아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굿을 할 때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는 <초공본풀이> 끝 부분과도 관련된다.

41) 김현선, 위의 글, 124쪽.

42) 김현선, 위의 글, 124쪽.

43) 현용준, 앞의 글, 521쪽(현용준, 1986, 『濟州島 巫俗 研究』, 集文堂, 46-58쪽에서는 이외에 ‘영매적 직능’, ‘연예인적 직능’을 더 꼽고 있기도 하다)

전세남을 호전 호난 일천기덕이 었어져 삼시왕(三十王)에 신원(伸冤)허연 천아대궐(天下大闕) 금법당에 “일천기덕 삼만제길(三萬祭器) 내어줍서” 허였더니 불도땅에 들어가 물맹지 전대(明絀戰帶)로 목을 걸러 대추남이저올로 저올리니 유정승뜨남아기 백근(百斤)이 차았구나. 일천기덕 삼만제기 궁전궁납(宮殿宮樂)을 내어주니, 제석궁에 신소미(神小巫) 었어, 복선성(鼓先生)은 조만소니, 장귀선성(杖鼓先生) 맹철광대, 대영선성 외랑쟁이, 설쇄선성 징내손이, 기메선성 늘메선성 떡(餅)선성, 제물(祭物)선성, 술선성 이태백이(李太白), 보담선성 문선왕(文宣王) 마련해야 두일뵐 열나을 전세남을 호와 유정승뜨남 아기 이른일곱 대천국 저올려 좋은 전승팔자(前生八字) 그르쳐옴던 초공난 산국 불리공업네다.<sup>44)</sup>

‘일천기덕’은 굿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무구, 특히 제장에 설비하는 모든 기(旗)와 ‘기메전지’<sup>45)</sup>를 가리키며, 삼만제기는 무구, 궁전궁납은 무악기(제주도에서는 ‘연물’이라고 함)를 각각 가리킨다. 인용한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굿을 하기 위해서는 굿을 주재하는 심방과 굿을 의뢰하는 사람, 그리고 신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이외에도 심방과 본주가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 것이다.

이는 <초공본풀이> 서사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점이다. 즉 <초공본풀이>는 ‘굿을 하는 주체’와 ‘굿을 하는 방법’, 그리고 ‘굿의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위해 왜 굿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건의 서술에서부터 굿 행위의 성립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신화이다. 무속의 핵심이 되는 무당, 그리고 무당의 조상인 무조신의 내력을 말하는 신화는 무속의 근본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당을 비롯하여, 무속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 행위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심방의 조상이 되는 무조신이 ‘굿을 하는 주체’와 ‘굿을 하는 방법’, 그리고 ‘굿의 효과’와 관련한 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 무속이 신앙 행위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굿’, 즉 제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육지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조신 <바리공주> 신화와 비교해보면 더욱 흥미롭다. 제주도와 달리 육지의 신화에서는 바리공주가 무조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리공주> 신화에서 초점화되고 있는 것은 ‘바리공주의 구제 행위’이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부모님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이계(異界)로 들어가 저승을 떠도는 영혼들을 구제해 주고, 무장승을 만나 고된 요구 조건들을 모두 들어준 후, 생명수를 얻어 본국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을 살리고, 결국 망자(亡者)들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무조신이 된다. 즉 그녀는 떠도는 영혼들을 구제하고, 죽은 사람을 살린 업적으로 무조신이 되었으며, <바리공주는> 이러한 그녀의 ‘구제 행위’들이 서사의 중심이 되고 있다. 망자를 위한 사령굿, 예를 들면 오구굿에서 <바리공주>의 구송은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바리공주의 직능을 재현하며, 그러한 굿을 무당이 주재함

44) 현용준, 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149-150쪽.

45) 문무병, 앞의 책, 335쪽. (제주도 굿에서 쓰이는 모든 지류를 가리키며 ‘기메’라고 하는데, ‘기메’는 제장에 설치하거나 의례에 직접 쓰기 위하여 찰호지나 백지, 천 등을 가지고 신의 형상을 만든 것을 말한다. 기메는 제장을 장식하는 용도로 쓰이는가 하면 의례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기메는 그 쓰임과 형태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엄밀하게는 신체의 형상을 지닌 것만 기메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깃발, 꽃 등의 형태를 지닌 것까지 두루 기메라고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편, 앞의 책, 363쪽.)



으로써 무당 또한 바리공주의 행위를 재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화와 굿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것이다.<sup>46)</sup> 〈바리공주〉 신화의 무조신이 그가 신으로 좌정하기 이전에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거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능력에 의해 신으로 좌정했다면, 〈초공본풀이〉의 무조신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 올렸던 굿과 그 굿을 할 수 있는 신의 능력 및 굿의 조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천도하기 위한 굿에 협의적으로 적용되는 〈바리공주〉편 무조신의 능력에 비해, 굿 자체를 제대로 할 줄 아는 능력 및 방법에 적용되는 〈초공본풀이〉편 무조신의 능력은 그 층위가 다르다. 다시 말해 망자의 저승길을 인도하는 무조신의 직능이 망자의 저승 천도를 비는 오구굿과 부합되고,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당이 굿을 하는 것이 〈바리공주〉의 제의적 맥락이라면, 굿을 창시하고 굿을 잘 하여 신이 된 무조신의 내력을 바탕으로, 심방이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굿을 주재해 나가는 것이 〈초공본풀이〉와 삼맹두의 제의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심방은 자신들의 조상이 굿을 잘 했던 것을 본으로 삼아, 자신들의 무업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된다.

〈표 1〉 〈바리공주〉와 〈초공본풀이〉에 나타난 무조신의 성격 차이

〈바리공주〉	‘재생’ 자체에 중점 (재생시킨 무조신의 능력)	병들투와 죽음의 극복, 망자의 저승 천도에서 기원함.	무조신의 능력에 기대는 제의 맥락이 사령굿에 한정적임
〈초공본풀이〉	‘재생 방법’인 ‘굿’에 중점 (굿을 잘 하는 무조신의 능력)	병들투와 역올한 죽음의 극복에서 기원함.	무조신의 능력에 기대는 제의 맥락이 모든 굿에 적용됨

〈초공본풀이〉편 무조신은 〈바리공주〉편의 무조신과 비교했을 때, 그 기원(起源)에 해당하는 인간사의 범위가 협소한 반면에 신의 내력과 관련된 현실의 제의적 맥락은 더 광범위하다. 또한 저승 세계에서의 안도적인 삶이나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바리공주〉에 비해 약화된 〈초공본풀이〉는 오히려 현세적 삶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재생 자체보다는 재생을 위한 방법, 즉 굿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현세적·현실적·구체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굿을 집행하는 심방의 역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심방과 굿에 대한 관심은 다른 무속신화인 〈차사본풀이〉와 〈칠성본풀이〉<sup>47)</sup>, 그리고 〈지장본풀이〉<sup>48)</sup> 등에서도 나타나는 바, 신화 속 인물들이 굿 또는 그와 비슷한 유사제의를 올리는

46) 최길성은 바리공주와 오구굿의 구조를 논한 연구에서 “재생의 모티프로 만들어진 신화를 오구굿에서 구술함으로써 시령을 조상으로 전회시키는 구조를 발견”했으며, 〈바리공주〉는 “무녀의 기원보다는 사면에 의한 ‘재생’의 모티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재생의 모티프는 무속의 오구굿에서 행하여지는 씻김, 고풀이, 길 가름 등 상징적 의례와도 잘 부합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길성, 1999, 『새로 쓴 한국무속』, 아세이문화사, 480-481쪽.

47) 전주희, 2008, 『제주도 서사무가와 증여 모티프와 제의적 상관성 - 〈차사본풀이〉와 〈칠성본풀이〉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25집, 동남어문학회 참고. 신화 속 인물들의 반복적인 증여 행위가 제의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서사무가가 구송되는 해당 굿의 맥락과 동일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함.

48) 전주희, 2009,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특수성 연구 - 서사와 제의적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참고. 지장아기씨의 제의 행위가 나타나며, 지장의 성격과 지장본풀이가 구송되는 제의의 성격이 이종적으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논의함.

장면들이 바로 그러하다. 결론적으로 제주도 무속신화에서는 무속 신앙 행위를 가장 가시적이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곳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삼멩두의 상징성과 종교적 맥락에 따른 신성성

삼멩두는 심방의 근원인 무조신의 내력을 푼 <초공본풀이>와 은유적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제주도 곳의 근본을 상징하는 무구이다. 이것은 삼멩두가 제주 무속의 한 뿌리가 됨을 상징하기도 한다. 사실 삼멩두는 제의의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도 각 심방에게 신성시된다. 무슨 곳에서든 삼멩두는 심방이 어김 없이 챙겨가는 무구이며, 곳에서 삼멩두를 따로 올려두는, 무조신을 위한 상인 '공식상'<sup>49)</sup>이 있다는 것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삼멩두는 평상시에는 심방의 집의 작은 장롱 안, 즉 당주에 모셔진다. 또 '심방의 생진일'이라고 하여 <초공본풀이>에서는 젓부기 삼형제의 탄생일이 9월 8일, 18일, 28일로 나타나는데, 심방들은 삼멩두에 대한 제를 흔히 9월 28일에 한꺼번에 올리기도 한다. 따라서 삼멩두는 무조신의 신체(神體)이자 물질을 통한 현현(顯現)이며, 심방의 의무 및 기능을 상징함으로써 제주 무속의 기본적이고도 암묵적인 교리 체계의 하나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삼멩두의 주된 재료가 놋쇠이며, 이 놋쇠를 '쇠동냥'으로 채워 만든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마흔 여덟 상단골, 서른 여덟 중단골, 쓰물 여덟 하단골들신디 쇠동냥하여 이방 멩두 뽀을 받아 새로 멩두를 만들고자 합니다. 조상님들이 쓰다 버린 꺾어진 숟가락'을 달라고<sup>50)</sup> 해서 이렇게 모인 쇠로 삼멩두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쇠동냥은 황해도 만신들이 자신들의 무구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하는 '쇠걸립'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sup>51)</sup> 사람들이 쓰던 물건이었으나 이제는 집에서 별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는 쇠를 걷어다가, 귀신을 쫓거나 신령을 부르는 무구로 만든다는 것은 버려진 쇠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렇게 만든 삼멩두가 어느 심방에 의해 쓰이다가 그 심방이 무업을 그만두게 될 쯤에는 다른 심방들에게 계승되고, 그것이 다시 또 다른 심방에게 누대로 전승된다는 점에서 삼멩두에는 거쳐 왔던 심방의 역사와 수많은 곳에서 기물로 기능한 그것의 신성성이 축적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다른 심방의 삼멩두나 자신의 조상이 썼던 삼멩두를 본메로 하여 새로운 삼멩두를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메와 같은 도상을 지녔다는 것만으로 일종의 '복제된 신성성'을 지닐 수가 있는 것이다.

삼멩두가 누대로 전승되면서 신성성이 축적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주도 곳에서 <초공본풀이>를 구송할 때 '공시풀이'(신메움과 일부한잔)<sup>52)</sup>가 전후로 구송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9) 김현선, 2009, 『공식상』,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편, 국립민속박물관, 72쪽 참조.

50) 김현선, 2002, 『제주도 무구 '삼멩두'와 '울쇠'의 전승적 연구』, 『생활문화연구』 제6호, 국립민속박물관, 127쪽.

51) 김현선, 위의 글, 127~129쪽 참조.

52) 공시풀이는 "제주도 지역의 곳에서 심방이 무조신과 더불어 자신의 무업과 관련있는 조상이나 스승심방(做 옛선생)들을 대접하는 제차"(강소진, 2007, 『제주도 곳의 '공시풀이' 고찰 - 이용옥 심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134쪽)를 말한다. 그러나 '풀이'는 독립 제차에 쓰이는 용어이

“초공 연질<sup>53</sup>)로 팔각긋던 옛날 선성(先生)<sup>54</sup>)옛날 황수(行首)<sup>55</sup>) …(중략)… 하산춘경<sup>56</sup>) 메구월일석<sup>57</sup>) 벌려옴던 선성님네도 초공연질로 신수품서.<sup>58</sup>) 전성(前生)긋인 신의 성방(신-刑房) 상신충<sup>59</sup>) 몸반던<sup>60</sup>) 일월조상(日月祖上)님네도 초공연질로 신수품서 …(중략)… [××형님, ××아지바님 등 이는 巫靈을 모두 호명하고 초공 난산국 신평네다. 과광성 신평어 삼서”<sup>61</sup>)

이는 본격적인 본풀이를 하기 전에 도가 및 주역 등에 밝았던 옛 중국의 현자들은 물론 같은 무업을 했던 심방들을 고향으로 초청하는 내용이다. 본풀이가 끝나면 앞서 그 무령들을 다시 호명하면서 술잔을 대접하는 사실을 구송한다.<sup>62</sup>) 곧 심방의 계보를 이루는 많은 심방 조상들은 또 하나의 무조신인 ‘초공’이 되면서 현재 곁을 진행하는 심방은 그들을 곁에 청하게 되는 것이다. 공시풀이(신매움과 일부한잔)를 통해 심방 개인의 생애와 맹두 물림의 내력, 무업 학습과정, 여러 관련 심방들의 계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sup>63</sup>)는 강소전의 연구에 따르면 공시풀이는 제주도 심방의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하나의 종교 문화적 맥락이 된다. 따라서 곁에서 구송되는 〈초공본풀이〉의 전후 맥락과 삼맹두의 전승을 따져보면, 제주도 무속에서 무조신 ‘초공’은 동종주술(긋 상황의 유사성, 무구 도상의 유사성)과 접촉주술(무조신이 사용했던, 선대 심방에 사용했던 무구를 사용)을 바탕으로, 신화 속 깃부기 삼형제, 유정승따님아기, 그리고 이후에 계속 팔자를 그르쳐 곁을 해야 했던 모든 심방들에게까지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표 2〉 삼맹두의 신성성 (⇒ 방향으로 신성성 강화)

깃부기 삼형제의 삼맹두	유정승따님아기의 삼맹두	조상 심방들의 무구	선대를 계승한 심방의 무구
제작의 신성성 깃 사용의 신성성	깃 곁에 사용되었다는 신성성	깃 곁과 같은 곁 같은 도상의 무구	접촉주술·동종주술을 통해 신성성이 축적된 무구

이처럼 삼맹두는 무조신과 심방을 상징함과 동시에 제의 속에서 심방의 역할 및 기능을 구체화시키는 영물로 기능하며, 심방의 일상과 그들 간의 계승에서도 신성시되는 중요한 제주도의 무구이다. 그리고

며 정확히 말하면 앞의 것은 ‘신매움’, 뒤의 것은 ‘일부한잔’이라고 할 수 있는 제차이다.  
 53) 초공신이 하강하는 길.  
 54) 옛날 무량질하던 심방선생을 뜻함.  
 55) 일제 초기까지 있었던 제주도 각 면의 무격 단체인 신방청(神房廳)의 장(長).  
 56) 일춘곳.  
 57) 선달그름에 동헌 앞에서 하던 곁이를.  
 58) 내려오심시오의 뜻.  
 59) 심방의 맨 윗 계급.  
 60) 수호신으로부터 수호와 권능을 받다의 뜻.  
 61) 현용준, 2007, 『제주무속자료사전』, 각, 127쪽.  
 62) 현용준, 위의 책, 150쪽.  
 63) 강소전, 앞의 글, 145쪽.

제주 무속의 역사적 깊이만큼 신성성이 축적된 기물이 된다. 따라서 언어전승(신화)과 물질(무구)전승, 행위(굿)전승이 상호보완적으로 기호 작용함으로써 삼멩두의 신성성이 획득되는 것이다.

## 6. 맺음말

지금까지 삼멩두를 중심으로 그것의 신화적 전거가 되는 〈초공본풀이〉, 삼멩두가 쓰이는 제주도굿을 참고로 하여 제주도 무속에서의 무조신 및 심방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지금도 전승되는 제주도굿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무구인 삼멩두는 끝없는 계승 행위와 언어적 전승 안에서 그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것은 그러한 종교적 맥락 안에서 신성성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삼멩두는 무조신과 심방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다양한 전승 맥락 속에서 접촉주술 및 동종주술의 인식 안에서 신성성을 확보하는 종교적 의미를 지닌 무구인 것이다.

본고에서 밝힌 제주도 무속의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가 보편적인 개념에서의 무당의 기능이나 의미와 비슷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인 제주도의 무속에서의 '특정 전승물'인 삼멩두, 〈초공본풀이〉, 제주도굿을 통해 그들이 공통적으로 불러일으키는 해석소인 무조신 및 심방이 지니는 의미가 어떻게 변별되고 구체화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다. 물론 본 논의로 삼멩두, 〈초공본풀이〉, 제주도굿이 생성해내는 제주도의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가 아주 뚜렷해졌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각 기호의 연결 고리 속에서 생산되는 해석소는 하나의 해석만을 강요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단지 본 논의가 특정 무구와 그것의 전거인 신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활용되는 제의의 맥락에서 생성해 낼 수 있는, 가능한 해석소의 하나로서 제주도의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를 유추하여 그 대강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강소전, 2007, 『제주도 굿의 ‘공시풀이’ 고찰-이용옥 심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권태효, 2002, 『제주도 무악기 ‘연물’의 전승적 연구-물질, 구비, 행위전승의 측면에서-』, 『생활문화연구』 제5호, 국립민속박물관.

김현선, 2002, 『제주도 무구(巫具) ‘삼뽕두’와 ‘울쇠’의 전승적 연구』, 『생활문화연구』 제6호, 국립민속박물관.

박연규, 2004, 『페스기호학에 있어 도상기호icon의 재현성』, 『기호학연구』 제16집, 한국기호학회.

송기태, 2007, 『씻김굿 무구(巫具)의 기능과 극적 의례성』, 『한국무속학』 제15집, 한국무속학회.

이명숙, 2004, 『서울지역 무구의 신화·의례적 기능』, 『한국무속학』 제8집, 한국무속학회.

전동열, 2005, 『대상과 의미의 관계에 대한 기호학적 고찰』, 『독일문학』 제96집, 한국독어독문학회.

최진아, 2005, 『무구(巫具)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무속학』 제10집, 한국무속학회.

\_\_\_\_\_, 2006, 『서울굿의 무구 연구』, 『한국무속학』 제12집, 한국무속학회.

현용준, 1969, 『濟州島巫覡의 職能者로서의 性格』,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乙酉文化社.

국립문화재연구소편, 2008,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巫具』(전라도 제주도편), 민속원.

국립민속박물관, 2009,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편.

김태곤, 1983, 『韓國巫俗研究』, 集文堂.

문무병, 2003, 『8. 제주도굿』,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편, 1974,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5冊 濟州道篇.

진성기, 2002,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최길성, 1999, 『새로 쓴 한국무속』, 아세아문화사.

최인학 외, 1998, 『기층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상체계(中)-시간민속·물질문화』, 민속원.

하효길 외, 2003, 『한국의 굿』, 민속원.

현용준, 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秋葉隆(아키바 다카시)·村山智順(아카마쓰 지조) 공편, 심우성 역, 1991, 『조선무속의 연구』 上·下, 동문선.

Chales Sanders Perice 저, 김동식·이유선 역, 2008, 『페스의 기호학』, 나남.

\_\_\_\_\_, 김성도 역, 2006, 『페스의 기호사상』, 민음사.

Erwin Pnofsky 저, 이한순 역, 2002, 『도상해석학 연구』, 시공사.

Umberto Eco 저, 김광현 역, 2000, 『기호 : 개념과 역사』, 열린책들.

\_\_\_\_\_, 2009, 『이야기 속의 독자』, 열린책들.

Abstract

## The meaning of the founder of shaman and simbang(shaman) through 'Sammengdu' the shaman's paraphernalia of Jeju island

Jeon, Ju-hee

The doctor's course of Sogang University

This report desires to seek the meaning of the founder of shaman and simbang(shaman) through the sign function of 'Sammengdu'(Sinkal-sword, Yoryeong-bell, Sanpan-three vessels) which is important for Jeju island's simbang, and reveals the cultural contexts creating such a meaning in and around myths and rituals(Gut). The origin of 'Sammengdu' is came from <Cho-gong bonpuri> which shows the beginning of Jeju island's founder of shaman. 'Sammengdu' has various functions of sign like icon, index, symbol in myth texts and rituals(Gut). In the rituals, the myth texts are recited. Therefore, I desire to consult the myths, ritual contexts, and religious-cultural contexts of Jeju island's shamanism full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ammengdu' precisely.

'Sammengdu' symbolizes the founder of shaman and also do the descendant Jeju island's simbang. Some signs refer some objects and leave the interpretants to the mind of interpreter who recognizes the objects. And then the interpretants, becoming another signs, cause infinite semiosis. The interpretant theory in Peirce semiotics implies that a sign not only refer an object in the world directly, but also becomes a mechanism creating a single cultural unit. So 'Sammengdu' which is useful for Jeju island's rituals and is considered as important for Jeju island's simbang, becomes a sign causing various cognition in the specific cultural contexts, and becomes a single cultural icon in itself. From such a premise, I think that the meaning of 'Sammengdu' is based on the founder of shaman and simbang, and I will reveal that 'Sammengdu' is recognized as based on the sacred of contagious magic and homeopathic magic in the culture of the myths, rituals(Gut) and simbang

**Keywords** : Sammengdu, the founder of shaman, simbang(shaman), Cho-gong bonpuri, ritual(Gut), Peirce's interpretant, sign, icon, index, symbol, the sacred, contagious magic, homeopathic magic

K C I

КСІ